

엔지니어들의 일하는 재미

李 疇 憲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영정보대학원 부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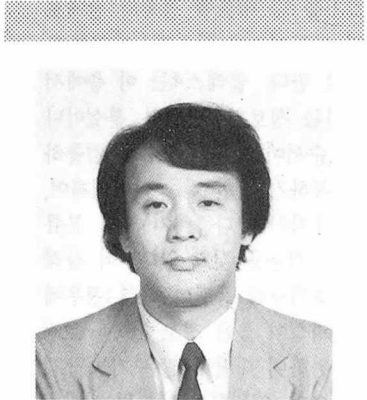
누구든지 어느 정도는 마찬가지겠지 만 참 바쁘게 사는 요즘의 나 자신이다. 조금 편해 볼까 하는 현실탈피사고 역시 전혀 없지는 않은 채 기업체에서 학교로 옮긴 것 같은데 욕심 많은 성격은 쉽사리 고쳐지지 못하는 것인지 오히려 더욱 바빠져 버렸다. 학교 시간외에도 의뢰 들어오는 자문역할 수행과 각종 세미나 등이 쉴사이 없이 뛰도록 만드는 까닭이다.

자문도 할 바에야 내 회사처럼 한 군데만 시간과 노력을 아낌없이 투자하려니까 자리바꿈을 한 1년 반이 지난 지금, 과연 나 자신이 아직도 기업에 몸담고 있는 것인지 학자인지 판단이 모호하기 그지 없다.

연구의 결과를 자연스럽게 기업으로 전환시킴으로써 세계적 첨단산업 기지를 형성한 미국 실리콘밸리의 정력적인 대학 교수들이 마냥 존경스러울 따름이다. 전산학이란 순수학문이 아닌 응용학문으로서 이 분야의 교수란 이론의 탐구외에도 해외기술의 추세와 상품동향 등에 민감하여야 된다는 스스로의 판단이 분명 그릇되지 않는 것 같으나 학교와 산업체에 동시에 충실한다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요즈음의 고민거리이다.

그러다보니 흔히 이야기하듯 대학 교수답게(?) 적당히 강의준비나 하며 남는 시간은 교외로 낚시나 다니면서 자연을 즐기고 못 읽은 소설책이나 읽어가며 한세상 여유있게 살아 볼까 하는 30대 중반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충동까지 가끔 느끼게 된다.

그러나 이토록 바쁠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하면 크나 큰 행복이다. 하고



필 자

- ▲ 남미시시피 주립대 전산학과 졸업
- ▲ 버지니아 주립공대 산업공학 석사
- ▲ IIT (Illinois Institute of Technology) 공대 산업공학박사
- ▲ 미국 벨연구소 연구원
- ▲ 금성반도체(주) 연구소 수석연구원
- ▲ 금성소프트웨어(주) 사업본부장
- ▲ 한국 외국어대 경영정보대학원 교수(현)

많은 분야 중에서 호기심 하나로 시작한 컴퓨터 공부와 졸업후 쌓았던 통신시스템 개발 경험이 귀국후 5년이 되는 지금까지 이토록 유용할 줄은 정말 몰랐다.

비단 나뿐만이 아닐 것이다. 교육대 졸업생들이 교사자리가 없어 짙짙 매고 인문계 출신들이 박봉으로 허덕이는데, 안정된 직장에서 승진해 가며 평온한 삶을 누리는 우리 컴퓨터 및 통신분야의 전문인들은 모두 이 범주에 속하는 셈이다.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 요즈음, 여·

야할 것 없이 과학기술자를 보호 육성해야 한다면 한편 생각하면 이 무슨 불공평한 처사인가? 물론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하자면 과학기술의 증진밖에 없다는 결론 때문이겠으나 이러한 배려는 바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어깨에 무거운 책임감을 부여한다는 것도 사실이다.

고생이란 젊을 땐 사서도 하고, 일이란 닳치는대로 해 보아야 추후 인생을 가다듬는데 도움이 된다는데 가난한 나라에서 정책적으로 밀어주고 푸짐한 일거리가 이곳저곳에서 굴러오니 이 무슨 행복인가? 책임과 의무는 나중 생각이고 말이다. 작년에 발간된 「Peopleware」라는 책에 의하면 일이란 재미가 없어야 진정한 일이다. 일이란 마지못해 하는 것이고 처음엔 다소 재미도 맞출 수 있으나 곧 지루해지고 마침내 지겨워져야 정상이다. 만약 일하는 것이 무척 재미있고 스스로 미치게 하고 싶은 것이라면 그건 일이 아니고 취미활동이 되는 셈이고, 따라서 그러한 활동에 대한 경제적인 대가는 받지 않아야 마땅하다고 한다.

일은 원칙적으로 인간의 의식주를 해결하는 기본일 뿐 흥미진진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수한 관리자는 부하직원들을 지겹도록 일터미 속에 파묻어야 하고, 나아가서는 철저하게 일에서 재미를 찾는 기회를 배제시킴으로써 그들이 멍뚱하게 고생의 대가인 월급봉투를 받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도 했다.

물론 억지이겠지만 우린 너무도 일

하며 돈벌고 바빠 근무하는 속에서도 악착같이 재미를 찾는 것을 당연시하는 욕심많은 동물의 속성을 지니고 있음도 사실이다. 재미있는 일거리와 대우 나은 곳을 찾아 헤매는 이러한 타성이 어느 분야보다도 우리계통 전문인들의 이직율을 높이는 원인이 되고 있는지도 모른다.

사실 하는 일이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출근한 후 퇴근길도 하루의 실적을 만족해 하며 명랑할 수 있다면 그건 곧 행복의 첩경일 것이다. 두뇌 집약적인 업무의 성격 때문인지 아니면 고리타분한 엔지니어적 특성 때문인지 우린 이 행복감에 도취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불임성이 부족하고 사고성이 없으며 정감을 표현하는데 인색한 기술자들의 특유함은 오로지 일을 삶의 목적으로 삼는 듯 일에만 매달리는 경향을 나 자신의 눈으로 자주 확인해 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발견은 이론적으로도 뒷받침된다. 흔히들 직장인들의 낙은 세가지로서, 하나는 일하는 보람이요, 둘째는 사람을 사귀는 대인관계에서요, 셋째는 남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권한의 매력 때문이라는데 우리 기술자들은 일하는 재미를 가장 중요시한다는 미국의 어느 논문이 바로 그것이다.

예를 들어 영업사원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재미로, 정치인은 권력 휘두르는 것을 우선 조건으로 삼는다는 대조적인 비교는 깊이 생각해 볼만하다. 거추장스러운 것은 싫고 잡일도 없이 마음에 맞는 사람과,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을 때 하면서 그 결과를 인정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기술자들이라는 이야기이다.

이렇게 고지식한 우물속에서 제 아무리 일감이 쏟아져 들어온들 과연 행복의 샘물이 솟아나올런지 갑자기 궁급해진다. 내 자신부터도 타인과 정

을 주고 받으며 조직의 지휘체계하에서 얼마나 사회생활의 진미를 깨닫고 주어진 삶의 진정한 행복을 추구해왔는지 의문스러워지는 까닭이다.

경영정보학이라는 학문은 기업의 성공적인 전산화 추진을 그 목표로 하고 있다.

이 학문은 인간, 환경, 기술의 삼위 일체를 중요시하며 인공지능, 네트워크, 사무자동화, 데이터베이스, 비디오 텍스 등의 기술적인 이론이 문제해결론으로 이용되려면 조직 구성원의 전산화에 대한 이해 및 참여와 전산시스템 도입을 적극 수용하는 환경 및 제도의 개선이 우선 갖춰져야 함을 강조한다.

따지고 보면 우린 그동안 컴퓨터의 성능과 기술자들의 지식만 높이 샀을 뿐 정보화사회를 구현하는데 있어 지극히도 필요한 조직행위적, 사회심리학적, 경영학적, 환경적 개념의 의미는 무시하는 경향이 없지 않았다. 교환기는 전자통신연구소에서, 컴퓨터개발은 기업체 연구소에서, 행정전산망은 데이터통신에서 주관해 가며 정보화 시대에 발맞추어 나아가자고만 역설했을뿐, 보통사람들인 이용자들의 참여와 이해추구에는 인색했던 것 같다. 기술로 밀어붙이면 된다는 사고방식, 조화를 이루지 못한 일방적인 해결대책은 어찌면 기술적인 일거리만 찾을뿐 인간미가 부족한 우리 엔지니어들의 고질병이 치유되지 않는 한 밝은 미래를 꿈꾸는 모두에게 전혀 도움이 안될런지도 모른다.

군인이 대통령이 되고 영화배우와 시인이 국회의원인 되는 현실을 목격하면서 문득 과학기술자가 대통령이 되어 이 나라를 다스릴 수는 없는 것일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첨단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위해서라면 치밀한 산업정책을 펼쳐나갈 기술자도 가능치 않겠느냐는 의구심

에서이다.

그러나 곧, 망해가는 나라를 연상하며 고개를 내젓게 되는 것은 또 웬일일까. 대부분의 과학기술자들은 철저한 이기주의자들이며 자기네들 하고 싶은 일만 골라서 한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아는 때문일까. 계산적으로 완벽한 듯 하지만 역시 말 못하고 글 못쓰며 다른 부류의 사람들과 쉽게 타협 못하는 기술자들이라는 비인간주의자 범주속에 바로 나 자신도 포함되어 있음을 자각하는 때문일까.

참 바쁘다며 행복하다던 자만심이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니 갑자기 무너지는 느낌이다. 앞으로 여러모로 반성하며 일에만 매달리지 말고 보다 인간답게 살고파진다. 아직도 가난을 면치 못하는 이 나라의 장래가 우리처럼 고지식한 기술자들의 두뇌에 달려 있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는 생각이 지배적이다.

꽃향기가 그윽한 사무실에서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탄생되고 반도체 서적 사이에서 시집과 소설책이 발견되고 화창한 봄날 푸르른 잔디위에 오손도손 모여앉아 전화통신문명의 앞날을 토론할 수는 없는 것일까?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과학기술자가 대통령이 못되란 법도 없고, 또 된들 안된들 그 무슨 상관 있으며 우린 보다 진정한 행복감을 맛볼 수 있을 터인데...

행복이란 상대적인 것이다. 학교와 회사를 바빠 뛰면서 학생들의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지켜본 후 회사에서 제품개발계획을 논의하는 재미도 썩 나쁘지만은 않다. 스승의 날이라고 카네이션을 받고 몽클해진 가슴으로 회사 사람들과 소주잔을 기울이며 밤새우는 맛도 제법 인생의 묘미를 터득케 해 준다. 그러나 일도 좋고 바쁜 것도 좋지만 난 앞으로 더욱 더 인간답게 살린다. ■